



# 제 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 회원·가족·내빈 등 4만여명 참여속에 성황리 마쳐

농업을  
농촌을  
우리의  
손으로  
가슴으로

한농연은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2박 3일간 회원과 회원가족 안동시민, 내빈 등 4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안동 낙동강 둔지에서 제 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개최하였다.

“농업을 우리 손으로, 농촌을 우리 가슴으로” 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8월 4일 7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대회 시작 2시간 전부터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지키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대회에는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김광원 농림해양 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장원석 농어업·농어촌 특별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석희 농협중앙회 경제 대표이사,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등 농업 관련 단체장 및 정계, 농민단체 등 각계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식량주권의 위기라는 지금의 농업 현실에서 다시 한 번 농업의 가치와 농촌의 의미를 되살려, 풍요로운 농촌, 희망찬 농업을 이룩하기 위해 대동단결, 화합의 한마당을 펼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서 서정의 한농연 중앙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농업은 성장 우선주의와 개방정책에 밀려 농업과 농촌은 황폐화되고, 농민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 모든 문제는 땀질식 단기 처방의 농업정책의 문제이며 한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개회식에서 내빈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대회를 하는 서정의 회장



격려사를 하는 허상만 농림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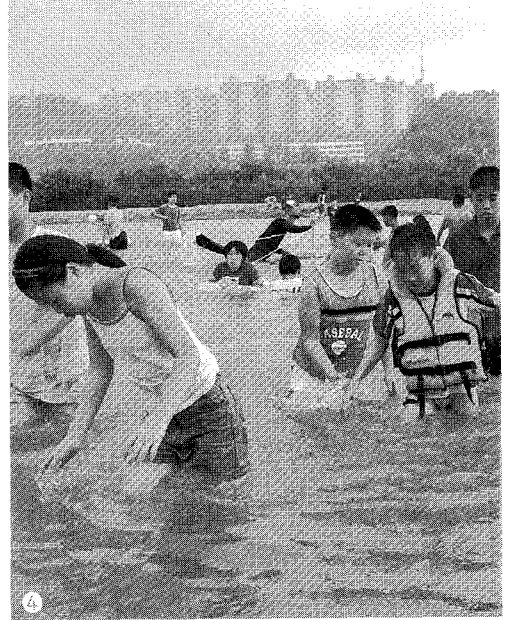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와 집권당의 능력부재다"라고 정부와 정치권을 비판했다. 서회장은 아울러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 농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속될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협상능력에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을 살려내야 하며 쌀 협상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여 통일농업을 대비하고 1군 1조합이 있는 곳은 지부를 폐지하고, 광역 시·도 지역본부장은 선거로써 직접 선출하는 협동조합 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적해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12만 농업경영인의 대표로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고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농촌 방문 기회가 늘 것이다. 이런 생활패턴의 변화를 잘 활용하면 농업·농촌의 미래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면한 쌀 관련 협상에서의 관세화 유예관철과 DDA협상에서의 개도국 지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 또한 정부는 향후 10년간의 농업·농촌종합대책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119조의 투융자 계획을 마

련했고 사업추진단계마다 엄격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집행,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축하메세지와 김광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학원 자민련 대표, 장원석 농어업·농어촌 특별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학술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가 행사장 곳곳에서 벌어졌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학술행사는 한농연중앙연합회의 주관으로 "쌀 협상 대응 및 쌀 산업협상 방안, 경제사업 활성화 민주적 조합운동을 위한 농·축협개혁 방안, 농업 인력육성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를 벌였다. 또한 농가부채상담 부스를 운영하는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 밖에 어린이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 물고기 잡기, 물놀이장 설치운영, 유적지 견학·관광지 방문, 회원 및 가족 장기자랑 한마당, 양·한방 무료진료, 도 대항 족구대회, 헤어 메이크업 강연, 장승세우기, 여성씨름대회, 농기자재 홍보·전시, 특산물 전시·판매운영, 농정현안 만화전시회, 영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이어졌다.



- ① 장승각기 - 난생처음 경험
- ② 한농연 농정만화 및 역사전시회 - 관심있게 바라보는 회원들
- ③ 농가부채·농업금융 상담창구 - 농림부와 농협직원에게 농가부채 문제에 대한 의문점과 민원 등을 접수 및 상담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농가부채상담부스
- ④ 물고기잡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

첫날 행사 8월 4일(水)

길놀이, 하회별신굿, 품바공연 등으로 식전행사가 이뤄졌으며, 7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 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가 펼쳐졌다. 서정의 한농연 중앙회장의 비롯하여 허상만 농림부장관, 김광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장원석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 송남수 전국농민연대 의장 등 농업관련 단체장 및 정계, 농민단체 등 각계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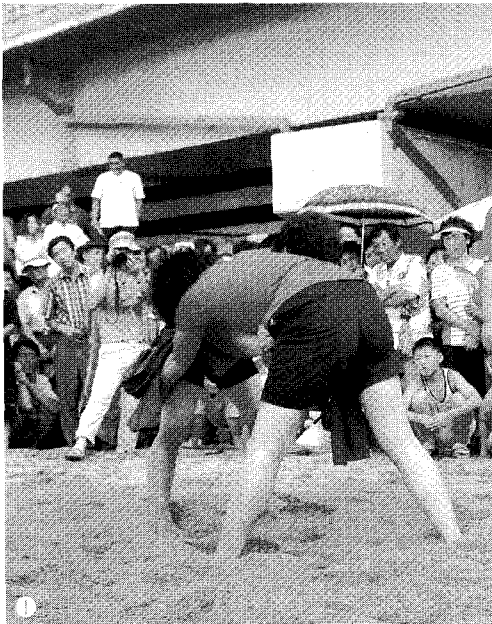
둘째 날 행사 8월 5일(木)

우리나라 농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쌀 협상 대응 및 쌀 산업 발전방안』, 『농·축협 개혁과제』, 『농업인력 육성정책』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물고기 잡기, 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에어놀이기구 운영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 비롯하여 여성씨름대회와 물동이 나르기 대회 등 각종 여성농업인 행사, 각도 대항 족구대회를 열어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

농업관련 업계 홍보·전시부스를 운영했다. 각종 지역특산물 전시판매관 및 대회기념품·정

책자료 판매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농정현안 만화전시회, 한농연 역사전시회 등의 전시행사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안동시의 역사·학술면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는 하회마을, 도산서원을 4시간 코스로 견학함으로써 안동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했다. 또한 농업인 건강을 위한 무료한·양방진료와 농가부채상담소를 운영하였다.

저녁시간에는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에 이어, 회원 및 가족장기자랑 한마당이 펼쳐졌다.



- ① 여성씨름대회 - 여성 회원들의 힘 자랑
- ② 각 도대항 족구대회 - 치열한 접전!
- ③ 물동이 이고 나르기

## 각종 대회 · 행사 및 입상자 소개

### ■ 도대항 족구대회

- 1위 : 강원도연합회
- 2위 : 경기도연합회
- 3위 : 경남도연합회

### ■ 여성 씨름대회

- 1등 : 박명희(부산 기장)
- 2등 : 진은숙(부산 기장)
- 3등 : 조숙자(경남 진주)

### ■ 물동이 이고 달리기

- 1등 : 박미자(경북상주)
- 2등 : 박승희(충남아산)
- 3등 : 박수자(북제주군)

### ■ 어린이 솜씨 자랑대회

#### 〈우리 농업 사랑 그림 그리기〉

- 대상 : 서이원(경북 의성군)
- 최우수 : 임사랑(경기 여주)
- 우수 : 김수지(경남 거창)  
양상운(전북 고창)  
김나현(경북 상주)

### ■ 우리 농업 사랑 백일장

- 대상 : 황신혜(강원 횡성)  
- “풍년가 불러보세”
- 최우수 : 권세희(전남 영암)  
- “농부라는 이름으로”
- 우수 : 이은실(경남 함안)  
- “농촌을 우리 모두 살려요”  
김다희(전북 익산)  
- “우리 농산물 최고요”

김민경(충북 증평)

- 왜 농민들은 아파야만 하나요

### ■ 주제 공모 당선작

- 이완규 이천시 연합회장  
- “농업을 우리 손으로, 농촌을  
우리 가슴으로”

### ■ 가족음악제

- 최우수 : 정수자(한여농 경남부  
회장)
- 우수 : 김진웅(경기 동두천)  
이기병(충북 보은)
- 장려 : 조선희(전북 완주)  
윤우성(전남 나주)  
손정숙(경북 영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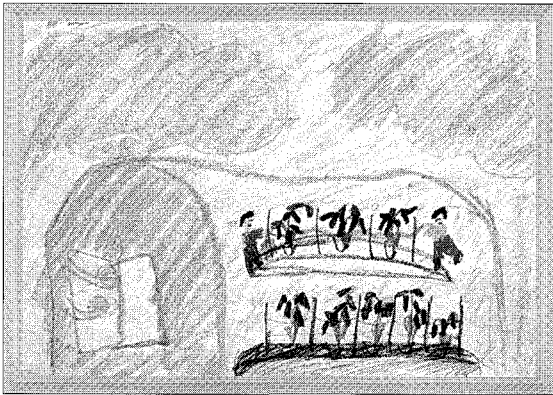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 대상 - 서이원 어린이 (경북 의성군)

작품평 - 좌우 대칭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원근감을 살려 조금 뒤로 배치한 아빠와 아이들의 활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주어 좋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미묘하게 차이를 둔 뒤편의 과수나무들로 인해 변화와 안정감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특히, 과수원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의 표현과 색깔, 일을 하며 즐거움을 나타낸 표정이 그림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우수상 - 임사랑 어린이(경기 여주군)

작품평 -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 오듯 내릴 것 같은 비닐하우스 속에서 고추밭을 일구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투명색의 비닐하우스와 크고 차갑게 내려앉은 구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을 통해 시원하게 불어오는 까닭일까. 평소 부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 작은 바람을 어린이의 감성으로 잘 표현한 그림이다.

우리농업사랑 어린이 백일장 수상작

▲ 대상 - 황신혜 어린이 (강원 횡성군)

### 풍년이 불러보기

아롱다롱 풀잎위에  
오색구슬 달아놓아 아침을 알리면  
구름속에 해님도 반가운 듯  
싱글벙글

농부들도 일찍나와  
하루를 시작하고 벌써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하기에 바쁨이라

익어가는 밭 곡식들  
쑥스러워 고개숙인 벼이삭도  
누렇게 익어만 간다

저 눈은 노오란색  
저 발은 빠알간색  
저 하늘은 푸으런색  
저기 숲은 초오록색

가을 하늘에 풍당 빠지고 싶어라.

올 해도 풍년 일세  
어기야 디야  
에헤  
놀아난다 놀아난다

올 해도 풍년 일세  
다같이 기뻐하세  
얼씨구

다함께 풍년이 불러보세.



## “식량안보 강화 정책수립을”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2일째인 5일 오전10시부터, 안동시 청소년수련관과 신라예식장에서는 ‘쌀 협상대응 및 쌀산업발전방안’, ‘경제사업중심·민주적 조합운동을 위한 농·축협개혁 과제’, ‘농업인력육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등 3개 주제의 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홍세 정책부회장은 ‘쌀 자급기반확보 및 쌀산업 발전방안’ 발표에서 “적정규모의 쌀 자급을 유지하고 식량안보 차원의 기반강화를 위해 쌀 정책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탄력적인 쌀생산조정제 도입과 쌀을 중심으로 한 남북농업교류 확대, DDA농업협상 종료시까지 추곡수매 존속, 추곡수매제와 별도의 공공비축제 도입, 고품질 쌀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가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은 ‘농협 개혁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 “대형판매전문조합과 시장 주도력이 있는 중소형 특산품판매조합을 육성해야 한다”며 “협동조합은 농민의 대표와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집행부를 지배하는 분권체제, 집단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흥기 한농연 수석부회장은 농업인력 육성정책 주제 발표에서 “현재 정부 정책의 후계농업인력육성정책은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신규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제도 제시행 및 선정인원을 증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중심의 일원화된 농업인력 육성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홍세 한농연 정책부회장



이현목 한농연 농업정책연구소장



김흥기 한농연 수석부회장



## 21세기 국민농업 실현을 위한 긴급 결의문

350만 농업인들은 지난 10여 년 간 WTO체제 출범으로 인한 수입농산물의 홍수 속에 끝없는 가격하락과 농가부채로 고통 받아 왔으며, 날이 갈수록 우리 농업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고 있다.

올해 시작된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서 9개 수출국들은 조금이라도 자국의 쌀을 더 팔아먹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 쌀 시장을 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재개되고 있는 DDA농업협상에서는 우리 농업에서 중요한 쌀, 마늘, 참깨, 고추 등에 대해 관세 상한을 정하고 관세와 국내 보조금을 대폭 감축하자고 나서고 있다.

열악한 농업여건을 고려한다면 우리 농업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으며 외부적인 충격까지 겹쳐져 농업과 농촌의 몰락은 기정사실화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농업이 해체될수록 국민의 건강한 삶은 위태로워지고 농업인과 땅이 파괴해질수록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농업과 농업인이 사는 길은 외국농산물의 거센 파도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은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국민들은 우리 농업에 대한 애정과 신뢰 속에 농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12만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인 회생을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며,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생산자로서 21세기 국민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 - 우리의 요구 -

1.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고 식량자급계획을 법제화하라.
2. 목표소득 지지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직접지불제를 확대하라.
3. 농협법을 정기국회 내에 조속히 개정하고 총체적인 협동조합개혁을 연내에 완수하라.
4. DDA농업협상에서 관세 상한을 철폐하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관철하라.
5.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학교급식법을 개정하라.
6. 일원화된 농업인력 육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7. 수입농축산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라.
8. 자율농정 실현을 위해 농업회의소 설립을 지원하고 농정위원회를 건설하라.

2004년 8월 4일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자 일동